

불펜 비상 걸린 KIA, 5위 자리도 '위태위태'

‘필승조’ 전상현·장현식 부상으로 이탈 ‘시름’

마무리 정해영, 8월 3경기서 2이닝 7실점 부진

필승조의 잇단 부상 이탈과 마무리 투수의 부진으로 KIA 타이거즈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뒷문 단속에 비상이 걸리면서 5위 자리도 위태로운 모습이다.

KIA는 지난 7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에서 연장 10회말 타진 최형우의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5-4 승리를 거뒀지만, 아쉬운 경기 내용에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외국인 선발 투수 선 놀린이 8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쳐 4-0으로 앞서가던 KIA는 불펜이 무너지면서 동점으로 따라잡혔다.

9회초 마운드에 오른 박준표가 불넷으로 1사 1루를 만든 후 연속 안타를 맞아 두산에 추격하는 점수를 쫓고, 이어 불넷을 또 헌납해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KIA는 급히 한승혁을 투입했으나 밀어내기 불넷과 내야 땅볼 등으로 점수를 내주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6일 두산전에서는 더욱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당시 선발 임기영이 5이닝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고, 오영창(4이닝)과 이준영(1이닝), 윤중현(1이닝)이 무실점 투구를 펼치면서 8회 2사까지 잘 버텼다.

그러자 KIA는 4-1로 앞선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정해영을 조기 투입했다.

하지만 정해영은 첫 상대인 안재석에게 슬

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김재호에게도 안타를 맞은 정해영은 정수빈에게 동점 투런포까지 헌납했다. 정해영은 9회에 마운드에 올랐으나 불넷과 안타로 2사 1, 2루의 위기를 만든 후 허경민, 안재석에 연속 2루타를 맞고 3점을 더 내줬다.

KIA 불펜은 7월 한 달 동안 건고한 모습을 자랑했다. KIA의 7월 월간 선발 평균자책점은 4.28로 7위에 머물렀지만, 불펜 평균자책점은 3.19로 1위였다. 2위 SSG 랜더스(3.77)보다도 월간 불펜 평균자책점이 월등하게 낮았다.

특히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의 활약이 도드라졌다. 장현식은 7월에 나선 5경기에서 3%이닝을 던지면서 한 점도 주지 않았다. 전상현도 7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하며 단 1점만 내줬다. 정해영은 7경기에 등판해 4세이브를 수확했고, 6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하지만 KIA 불펜은 8월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에 치른 6경기에서 KIA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5.89로 같은 기간 10개 팀 가운데 8위에 머물렀다. KIA 불펜진은 세 차례 불펜세이브를 기록했다.

7월까지 정해영과 함께 KIA의 뒷문을 단속하던 장현식, 전상현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불펜이 헐거워졌다.

장현식과 전상현은 7월까지 KIA의 확실한 필승조로 활약했다. 7월까지 장현식은 15홀드,



전상현은 16홀드를 수확했다.

하지만 장현식은 지난달 29일 팔꿈치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전상현도 팔꿈치 부상을 당해 7월 3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필승조가 빠지면서 부담감이 커진 정해영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4-4로 맞선 9회말 등판한 정해영은 선두타자 허주석에 끝내기 홈런을 맞았다. 3일 한화전에서는 팀의 6-3 리드를 지켜 세이브를 수확했지만, 안타 1개와 불넷 2개로 2사 만루에 몰리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6일 두산전에서는 1이닝 5피안타 6실점으로 난타를 당해 체면을 구겼다.

장현식, 전상현의 대체 필승조로 낙점한 박

준표와 한승혁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KIA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월에 나선 7경기에서 7이닝을 던지는 동안 1자책점만 기록했던 박준표는 8월 세 차례 등판에서는 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5실점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한승혁은 제구 불안 속에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펜 난조 속에 KIA의 5위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5위 KIA(49승 1무 48패)와 6위 두산(43승 2무 51패)의 격차는 어느덧 4.5경기까지 좁혀졌다.

KIA가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수성하면서 4위까지 노려보려면 불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슬비기자

박빙 승부에 강한 SSG, 후반기 타율 꼴찌에도 승승장구

1점차·2점차 승리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아...후반기 역전승은 1위



SSG 랜더스의 후반기 팀 타율은 0.226으로 꼴찌다. 0.316으로 후반기 타율 1위인 KIA 타이거즈와 1할 가까이 차이가 난다. 팀 성적은 정반대다.

SSG는 후반기에 치른 14경기에서 10승 4패를 거둬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후반기 승률을 기록했다. 시즌 개막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67승 3무 30패로 2위

LG 트윈스(59승 1무 38패)에 무려 8경기 차로 앞선 선두를 질주 중이다.

팀 타율이 바닥에 머무는데도 승승장구 하는 이유는 박빙의 상황에서 한층 강한 집중력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SSG가 올해 거둔 67승 중 1~2점차로 이긴 경기는 절반이 넘는 34승에 달한다. 1점차로 이긴 경기가 21경기, 2점차로 이긴 경기가 13 경기였다. 모두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후반기에 거둔 10승 중 7승이 1점차였다.

문승원, 노경은 등 선발 자원들이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전반기에 험거운 모습을 보였던 허리가 탄탄해졌다. 전반기 SSG는 불펜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4.53으로 8위에 머물렀지만 후반기는 2.71로 푹 떨어졌다.

박빙 승부에서는 불펜이 한층 견고한 모습을 자랑했다. 후반기에 1점차로 이긴 7경기에서 SSG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1.53에 불과했다.

타선도 중요한 상황에는 힘을 내고 있다.

후반기 득점권 타율은 0.250으로 10개 구단 중 9위에 불과하지만 역전 주자가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후반기에 역전 주자가 있

을 때 SSG의 팀 타율은 0.455에 달한다.

타선과 불펜 모두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강해지다보니 뒷심이 좋아졌다. SSG는 후반기에 7경기를 역전승으로 이겼다.

역전승이 많은데도 1, 2점차의 어려운 승부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짜릿한 승리가 많아지면 선수단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사기는 올랐지만, SSG는 지난주 6경기에서 모두 점점을 벌이면서 피로가 쌓였다. SSG는 지난주 6경기에서 모두 2점차 이내의 점점을 지고, 3일 연속 연장전을 치렀다.

특히 불펜 소모가 상당했다. 만 38세의 베테랑 노경은은 4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부터 6일 인천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3일 연속 등판해 40이닝을 던졌다. 승부가 점점으로 흘러가면서 주전 야수들도 쉴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다행히 이를 휴식이 예정된 상황이다. KBO 리그는 오는 주말부터 2연전을 치러 8일 뿐 아니라 9일에도 경기가 없다.

지친 SSG로선 달콤한 휴식이다. 게다가 거듭되는 점점 승리로 팀 분위기도 좋다. 재충전까지 수월하게 마친 SSG는 10~12일 KT 위즈와 마지막 3연전을 치른 뒤 두산 베어스와 2연전에 나선다.

뉴스

“포상 실적 고려”...김민석 1년6개월 자격정지 결정 배경은

김성철 위원장 “숨방망이 처벌 아냐...선수에게 치명적 징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등으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포토)와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의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에게 1년 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대표팀 강화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저지른 점을 모두 고려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낸 결론이다.

김민석은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국가대표로 뛸 수 없고, 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김성철 위원장은 “선수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는 치명적일 수 있다. 타 종목과 비교해 경징계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분위기와 선수 앞날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그간의 포상 실적도 있어 이를 고려해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민석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팀 주일 은메달, 남자 1500m 동메달을 따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도 동메달을 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대표 주자다.

김성철 위원장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선수촌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성남시청)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민석보다 가벼운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나왔다.

정재웅의 경우 당초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음주운

전 사실이 알려졌고, 빙상연맹은 선수들에게 추가 경위서를 받아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정재웅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기 전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만 적으려고 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성철 위원장은 “사고가 나서 당황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술을 마신 정선교(스포츠포토), 정재원(의정부시청)의 징계 수위는 각기 달랐다. 정선교는 자격정지 6개월, 정재원은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가 주어졌다.

정선교는 동료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반면 정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둘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생긴 이유다.

김성철 위원장은 “정재원이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본인 주량이 많이 초과해 술을 마시는 바람에 선수촌에 어떤 차량을 타고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며 “선수촌 복귀 후 자기 숙소에서 잠만 잤고, 김민석의 음주운전 사고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은 정재



웅과 같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표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김성철 위원장은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 상황 뿐 아니라 선수촌 내 상황을 모두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이 충분히 술을 마실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 있다”며 “선수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부상자 명단

오르면 ‘주사 치료’ 가능

부상자 명단 2군 도입 추진할 듯

프로야구 선수들의 시즌 중 주사 치료가 한결 유해했다. 치료가 가능할 기간으로 분류되는 예외 조항이 5개로 확대된 덕분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종로구 광화문 모처에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근 프로스포츠계의 이슈 중 하나는 주사 치료 금지 여부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목록 국제표준 S9로 분류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C)의 모든 주사 치료를 경기 기간에 한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WADA가 경기력 향상과 선수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선수들의 GC 사용을 제한하자 KADA도 같은 내용을 국내 선수들에게 적용했다.

프로스포츠 단체들 중에서도 매일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야구계가 KADA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까지 야구 선수들의 치료에 빈번하게 사용됐던 GC 국소 주사 치료의 금지는 선수의 부상 회복을 더디게 하고 치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메이저리그(MLB)는 WADA의 금지목록 미준용 방침으로 얼마든지 주사 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일본프로야구는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GC 국소 주사 치료는 일반인들 처방에도 많이 사용된다.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야구계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활용하면 필요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KADA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KADA가 한 발 물러났다.

KADA는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단체와의 실무 협의와 스포츠의학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개정했고,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가장 큰 변화는 ‘경기기간 중’ 기간에 ‘경기기간 외’로 보는 예외 조항을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구단이 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않는 기간만 ‘경기기간 외’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부상자 명단 등록 기간과 큰 부상으로 인한 출전 불가 및 시즌 아웃으로 공시된 기간, 올스타 브레이크 등을 추가로 담았다.

지금까지 시범경기 개막 후 포스트시즌 종료 또는 탈락 전까지 TUE 없이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부상자 명단을 활용해 GC 주사 치료가 가능해졌다.

가령 A 선수가 부상으로 GC 국소 주사 치료를 원할 경우 부상자 명단에 등록해 이를 추진하면 된다.

KBO는 좀 더 원활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부상자 명단 운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등재일인 30일이 지나면 이동 가능한 재활자 명단(가칭) 등을 제도화 하고 부상자 명단 제도를 2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주사 치료를 받았더라도 복귀 후 실시한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GC가 검출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KADA가 공개한 GC 국소 주사 치료의 배출(Wash out) 기간은 대략 3일. 하지만 선수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려면 의료진과 선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후 TUE 신청을 통해 소명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현재 프로야구는 1주일에 구단별 2명씩 KADA의 약물 검사를 받고 있다.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한다.

KADA 관계자는 “TUE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의사 진단과 검사 결과, 진료 기록으로 이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입증해야 한다. 쓸 수 있는 (금지되지 않은) 약물이 많은데 예전부터 그랬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관과해서 안 되는 점은 체내에서 검출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대체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